



축협중앙회

최첨단 안산배합사료공장 개장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3년여 준비 끝에 지난 24일 안산배합사료공장(장장 유재영)을 개장했다.

동회는 총 3백억원을 투입하여 일일 7백톤 생산 규모로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업단지내 만여평의 대지에 연면적 4,238평에 원료의 투입에서 포장, 적재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양축가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배합사료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부는 사료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이 포함된 사료관리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사료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보면 사료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으로 조정했으며 동물용의약품·카드뮴 및 살모넬라 등에 대한 사료종류별 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고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배합사료제조업과 보조사료제조업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권한과 정부관리양곡 부산물사료의 판매방법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보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찌꺼기를 단미사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단미사료와 보조사료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정하고,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미사료제조업 등록대상사료의 범위에 채종박·면실박 등을 추가하는 등 단미사료제조업 등록대상사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사료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될 시설기준을 삭제하여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사료의 검사항목에 잔류농약검사를 추가했으며 사료검정기관이 갖추어야 될 시설과 인원에 잔류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및 분석요원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개소

첨단기술개발사업 및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키위해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소장 성배영)가 지난 12일 개소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현장에 바탕을 둔 기술을 개발·보급할 것이라 개소 취지를 밝혔다.

(재)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용S/W 활용교육 실시

(재)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지난 23일부터 그간 자체개발한 농업용 경영관리 S/W를 낙농, 양돈, 화훼, 채소 등 4개 분야별로 4박5일씩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

이 교육은 수원소재 농촌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하며, 참가비는 숙박비·부대비용 포함 4만5천원이다. 이와같은 컴퓨터활용 교육은 향후 계속될 것이라 관계자는 밝히고 있으며, 양계분야의 경우 타분야와 달리 보편성을 부여하기 어려워 S/W개발이 부진한 상태라 지적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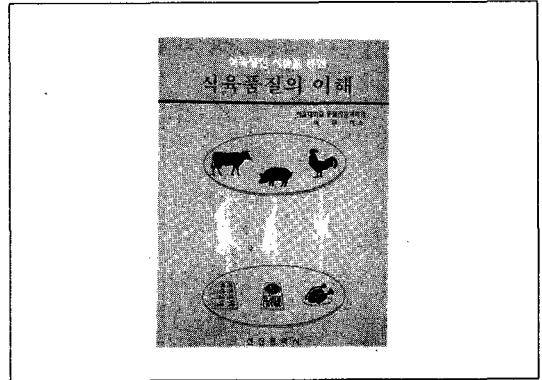
상임이사회 개최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회장 박근식)는 지난 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안문제에 관한 심의를 했으며 이달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계룡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심의된 내용을 보면 축산자동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명칭을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로의 전환과 회원가입 범위를 수입업체까지 포함하여 전면 개방하고, 전문분과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논의를 했으며, 이같은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임시총회에 상정

키로 했다.

식육품질에 새롭게 접근한 책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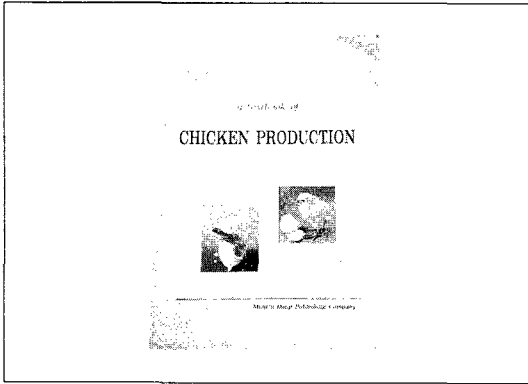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에 재직중인 이무하 교수는 최근 식육생산 분야를 양축가에서부터 도축장, 도소매 유통업 그리고 소비자에 이르는 전과정을 하나의 사슬로 인식하여 접근, 저술한 “식육생산 사슬을 통한 식육품질의 이해”를 선진문화사를 통해 출간했다.

이무하 교수는 발간사를 통해 “가축의 생산이 축산의 목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 소비자의 요구에 충족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국제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으며, 식육품질이 무엇인가를 식육생산 사슬속에서 이해하고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식육의 품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국내저자가 집필한 양계관련 영문서적 발간

국내 최초로 영문으로 쓰여진 양계서적인 “a text book of CHICKEN PRODUCTION”이



최근 문운당에서 발간되었다.

대구대학교 남기홍 교수와 제주시험장 정선부 장장이 공동 저술한 이책은 닭의 생산부터 사양, 가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

한국오리협회

요리책자 출판기념회 개최

한국오리협회(회장 장규호)는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5일 관계자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수원호텔에서 “특미 오리고기 요리책자”의 출판기념회 및 시식회를 개최했다.

발간사를 통해 장규호회장은 “오리업계가 그간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밝히고 “이번 요리책자의 발간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리산업의 발전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축산단체 농축산물 가공업무 환원 추진

'85년 7월 농림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시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농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수산부로의 환원을 위해 각 축산단체들이 다각도로 활동을 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측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국의 식품·의약 행정청(FDA)과 흡사한 새로운 행정기구 설립을 입법추진에 나서고 있어 이를 계기로 그동안 식품가공업무중 잘못 관장되어온 농축산물 가공권을 농림수산부에 되돌려 수입 개방에 따른 농축산업의 효과적 대책을 수립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원화된 창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축산물가공업무의 이원화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에서 도계까지만 농림수산부에서 담당하고 도축이후 가공·소비단계까지는 현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또한 축산물 검사에 있어서도 이원화되어 있고 축산물의 품목별 업무소관도 구분되어 관장됨에 따라 혼선을 유발하여 국제화 시대에 부적절한 처사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농민이 생산한 축산물의 가공·유통업무를 농림수산부가 관장을 해야 축산가공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수급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림수산부로의 환원을 위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알뜰주부 형명한손
먼저찾는 닭과 계란**